

# 从李退溪到李栗谷： 在韩国儒学史上的意义

崔英辰

(成均馆大学校 儒學大學 韓國哲學專攻 教授, 栗谷學會 1)



## ○ 1. 緒論

- 13세기 중엽부터 한국에 수용되기 시작한 주자학은 15세기 여말 선초 혁명기의 이념으로 기능하였며, 16세기 사단칠정논변을 통하여 한국성리학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17세기 변혁기에 조선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하였으며 18세기 호락논변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창출되었다.
- 中国朱子学13世纪中期传入朝鲜半岛，15世纪成为丽末鲜初的革命理念，16世纪四端七情论争确立了朝鲜性理学发展的雏形；17—18世纪湖洛论争提出了许多新的问题，在解决这些问题的过程当中有很多新的理论学说被提出。

이후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전개된 심설 논변을 통하여 한국성리학은 주자학의 범위 안에서 심학화되는 과정을 봄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성리학은 사단칠정논변·호락논변·심설논변을 통하여 정립되고 심화되어 중국의 주자학과 구별되는 이론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논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19世纪中期至20世纪中期的心说论争则使得韩国性理学在朱子学的范围内实现了“心学化”的发展。这三场论争深化并发展了中国传统的朱子学，从而形成了韩国儒学的特色。这样大规模的论争在中国或是日本都是不常见的。

- 이 3가지 논쟁 가운데 그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사단칠정논변이다. 이 논변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이론들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기반이 되었으며, 양명학과 실학 등 조선유학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논변을 계기로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성립되어 조선후기 학계와 정계 등 사회전반을 주도하게 되었다.
- 这三大论争的出发点是四端七情论争，在这场论争中许多问题被提出，在探索解决这些问题的过程当中创建了很多新的理论，而这些理论就成了朝鲜后期性理学的理论基础，不仅如此，这些理论还对阳明学、实学等整个朝鲜儒学产生了巨大的影响。以这场论争为契机产生了岭南学派和畿湖学派，两个学派在朝鲜后期成为掌握学界和政界最主要的力量。

## 2. 孟子의 理論 體系와 四端七情論爭 의 根本問題

- <맹자의 이론 체계>
- 천 → 성 → 不忍人之心(四端) → 不忍人之政
- 性[절대선] 情[선의 심리적 구현체] 行[선의 사회적 실현]
  
- <孟子的理论体系>
- 天→性(仁义礼智)→不忍人之心(四端)→不忍人之政
- 性（绝对善），情（善在心理上的体现），行（善的社会性实践）

### 四端七情论争的焦点： 如何论争四端的无不善

- 퇴계 : 사단과 칠정의 峻別과 ‘情善論’ 의 정립
- -사단칠정논변은 정치운 퇴계 고봉 등 3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다. 사단칠정에 대한 규정에는 6가지가 있다.
  
- 退溪：对立的逻辑和“情善论”的成立
- 四七论辨是在秋峦郑之云、退溪与高峰（1527—1572）之间展开的论争，他们的观点主要产生了如下六种不同的变化：

- (1) 1537年，秋峦：四端发於理，七情发於氣。  
◦ \*四端과 七情의 所從來(四端七情互發)
- (2) 1553年，退溪：四端理之发，七情氣之发。  
◦ \*四端과 七情의 構成要素(理氣互發)
- (3) 1559年，退溪：四端之发纯理，故无不善；七情之发兼氣，故有善恶。  
◦ \*四端의 絶對的 價值와 七情의 相對的 價值에 대한 存在論的 根據
- (4) 1560年，退溪：四则理发而气随之，七则气发而理乘之。  
◦ \*四端과 七情을 構成하는 理와 氣의 役割과 그 差異
- (5) 1561年，高峰：情之发也，或理动而气俱，或气感而理乘。
- (6) 1568年，退溪：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捨於氣，然後流爲不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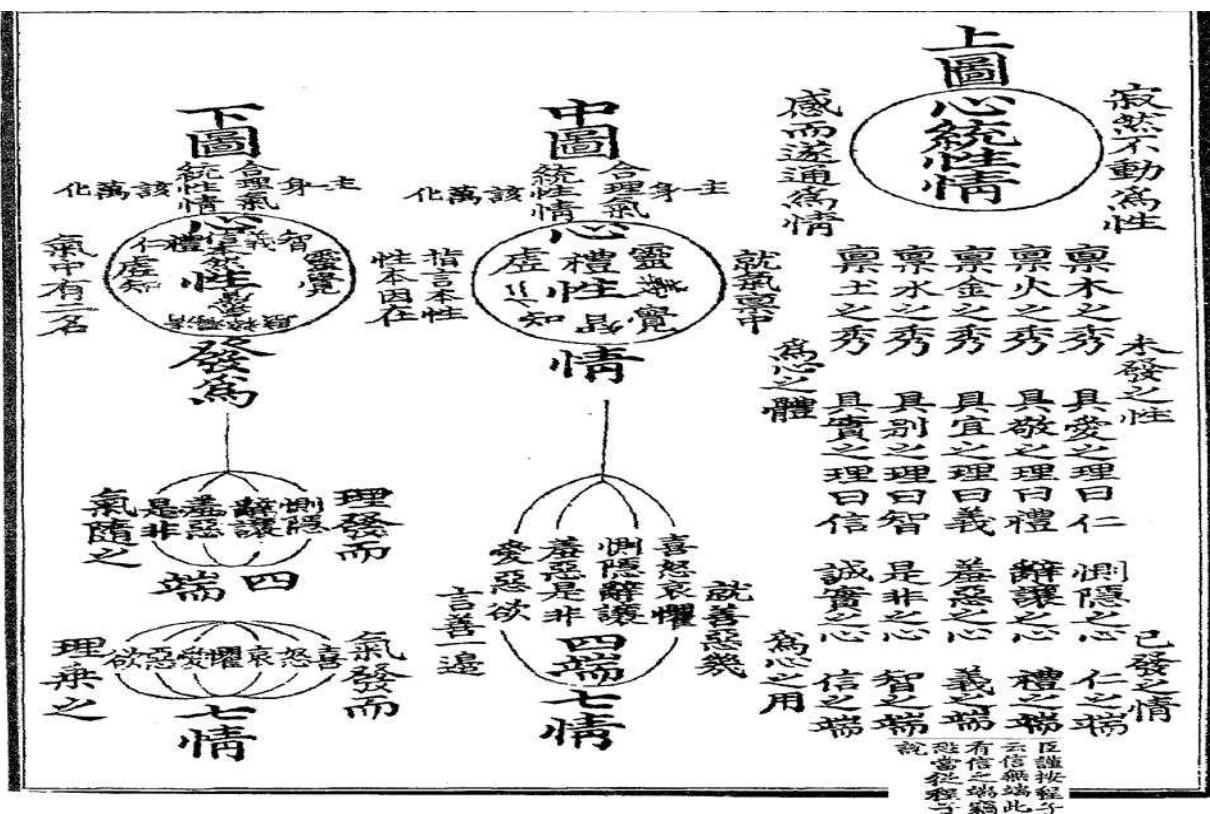
### 3. 退溪의 딜레마：四端도 不善할 수 가 있는가?

退溪的困境：四端是否也有不善？

- 1. 고봉 : 만약 넓게 정에 나아가 자세하게 논한다면 四端의 발동도 절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본디 모두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혹 마땅히 수 오해서는 안 될 바에 대하여 수오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해서는 안 될 바에 대하여 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夫以四端之情，爲發於理，而無不善者，本因孟子所指而言之也，若泛就情上細論之，則四端之發，亦有不中節者，固不可皆謂之善也。有如尋常人，或有羞惡其所不當羞惡者，亦有是非其所不當是非者)
- 理弱氣強

- 2. 퇴계 : 四端이 不中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근본적인 요인은 四端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氣가 혼탁 함’에 있다.
- 夫人羞惡其所不當羞惡, 是非其所不當是非,  
皆其氣昏使然

- 3. 퇴계(1568년) : 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擇於氣, 然後流爲不善  
(1568年)
- 이 진술은 사단의 기가 사단의 리를 엄폐하는 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단 그 자체는 순전 무악하다는 퇴계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 此叙述可以解释为四端的气掩盖了四端的理，因此退溪“四端本身纯善无恶”的这一观点在逻辑上无法成立。



## 4. 栗谷的‘本然之氣’

- 인심과 도심은 모두 기가 발동한 것이다. 기가 본연의 리에 순응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 본연의 기이다. 그려므로 리가 본연의 기를 타고 도심이 된다. 기가 본연의 기를 변질시킨다면 기도 본연의 기를 탘기 되어 그려 질이 되어 과불급하게 된다.
- 人心道心俱是氣發，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則氣亦是本然之氣也，故理乘其本然之氣而爲道心焉。氣有變乎本然之理者，則氣亦變乎本然之氣也，故理亦乘其所變之氣，而爲人心，而或過或不及焉。

- \*퇴계에 있어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진 문제, 즉 ‘리를 실현시키는 기와 리를 엄폐하는 기’라는 문제가 ‘본연지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다.
- 在这里，退溪所未能解决的关于气的问题，通过“本然之气”这一概念理出了头绪。

- - 도심도 본연지기이다.
- 以道心爲本然之氣者, 亦似新語 雖是聖賢之意, 而未見於文字.
- - 성현의 천언만언은 다만 그 기를 검속하여 기의 본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기의 본연은 호연지기이다.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차면 본래 선한 이치가 조금도 엄폐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맹자의 양기론이 성문에 공을 세운 소이이다.
- 聖賢之千言萬言, 只使人檢束其氣, 使復其氣之本然而已.  
氣之本然者, 浩然之氣也; 浩然之氣, 充塞天地, 則本善之理, 無少掩蔽, 此孟子養氣之論, 所以有功於聖門也.

## 5. 退溪 四端七情論의 再構成

- 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氣, 然後流爲不善(退溪)
- 四端之情, 理發而本然之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揜於所變之氣, 然後流爲不善(退+栗)

## 6. 朱子와 栗谷 人心道心說의 構造 的 差異 : 二本論과 一本論

- 栗谷与朱子人心道心说在结构上的差异: 二本論与 一本論
  - 朱子
  - 1.<中庸章句序>: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為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 2.《朱子語類》:此心之灵, 其觉于理者, 道心也; 其觉于欲者, 人  
心也。。
  - 3.《大禹謨》注解 (69岁):心者, 人之知觉, 主于身而应于事物  
者也. 指其生于形气者而言, 则谓之人心; 指其发于义理者而言,  
则谓之道心. 人心易动而难反, 故危而不安, 义理难明而易昧, 故  
微而不显。

- 栗谷
- 人心道心皆發於性，而爲氣所揜者爲人心，不爲氣所揜者爲道心。
- 人心道心，夫孰非源于理乎？.....源一而流二。
- 情之發也，有爲道義而發者，如欲孝其親，欲忠其君，見孺子入井而惻隱，見非義而羞惡，過宗廟而恭敬之類是也，此則謂之道心。有爲口體而發者，如飢欲食，寒欲衣，勞欲休，精盛思室之類是也，此則謂之人心。

● 谢谢大家！